

식약처, 청년과 함께 안전한 식의약 유통환경 조성

- 제6기 ‘온라인 시민감시단’ 90명 선발...5월 28일 발대식 개최
- 온라인 허위·과대광고 모니터링, SNS를 통한 홍보 병행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식품, 의료제품의 불법유통과 허위·과대광고를 소비자가 직접 점검하고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‘제6기 온라인 시민감시단*’ 90명을 선발하고 5월 28일 발대식을 식약처(충북 오송)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민감시단 임명

이번 제6기 감시단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(온통청년*) 등을 통해 공고하고 개인별 소통 누리집(SNS)과 지원동기를 검토해 식의약 온라인 업무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(90명)을 선발하였다.

* 온통청년 : 청년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청년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, 광역·기초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제공하는 데이터 관리체계

이번 감시단은 식품·건강기능식품, 의약품·의약외품, 화장품·의료기기 3개 그룹별로 팀을 이루어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며, ▲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온라인 안전관리 테마 발굴 ▲식품, 의료제품 허위·과대광고 모니터링 ▲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.

식약처는 이번 제6기 ‘온라인 시민감사단’ 활동이 올바른 식의약품 등 소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온라인 시대에 맞는 청년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·의약품 등을 구매·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이버조사팀	책임자	팀 장	박영민 (043-719-1901)
		담당자	사무관	최경식 (043-719-1902)

